

코로나로 자원 금감 나주시 허리띠 졸라

지방교부세 감소·세계 감면에
지출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투자 우선순위·경상예산 절감 등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원이 급감하자 허리띠를 바짝 조여가고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투자사업 우선 순위 검토, 코로나19로 추진 불가한 사업 점검, 집행 부진 사업과 경상예산 절감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는 경기 침체로 올해 교부세가 406억원(정산·산정분) 감소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세계 감면 등 재정여건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해외수출입

자 등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상하수도 사용료와 농기계 임대료 등 한시적 감면 조치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액이 약 2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염병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재난지원금 30억원 ▲전남형 긴급생활비 50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8억원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5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0억원 이상 자체 재원이 투자된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65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나주시 보통교부세 감액도 111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국내·외 여비 등 경상경비 23억원 ▲마한문화제 취소 등 36억원 ▲집행 잔액 등 사업량 조정 130억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25억원 등 총 228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한 자원은 하반기 필수경비와 투자사업 우선순위 검토 결과에 따라 재투자한다.

4회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9345억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81억원 증액돼 지난 9일 나주시의회에 제출됐다.

나주시는 한정된 자원의 선별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한전공대 설립 지원, 에너지밸리 조성 등 미래 지역발전 핵심 동력이 될 협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나주시 재정현황과 전략적 운용방안'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19일부터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열어 재정 현황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밸리 조성 등 단기간 대규모 투자 수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로 시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출구조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시민들과 공유해 전략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기자 노트

장흥군청사 랜드마크로 지어야



김용기 제2사회부 중부취재본부장

10년 이상 끌어온 장흥군 청사 건립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장흥군은 "현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위험하다"며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장흥군의회는 "주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지난 10일 '장흥군 청사 신축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청사 신축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장흥군은 현 청사가 40년 넘은 노후건물로 위험시설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형편이어서 공직사회의 불안감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소연한다.

김정완 장흥부군수는 "현 청사가 붕괴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청사 신축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흥군은 현 부지내 신축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150억원 이상의 매입비 등 공사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 청사 신축 건립기금 조례 제정 이후부터 총 사업비 400여억

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3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의회는 민선 7기 들어 줄속으로 청사 신축을 서두르는 데는 임기 내 치적 쌓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시각이다. 의회는 "2차례 실시한 공청회도 신뢰가 낮다. 보다 폭 넓은 여론조사를 통해 대다수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맞섰다. 현 청

사가 건립된 1977년 장흥군의 자동차 등록은 고작 100여대였는데 지금은 2만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 청사 주변의 도로망이 취약해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면 진솔하고 폭넓게 주민여론을 수렴하라는 의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앞으로 준공역 지자제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해 청사 신축 사업을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했으면 한다.

장흥군과 의회는 지혜를 모아 신청사가 장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지어지길 바란다.

/kykim@kwangju.co.kr

배 슬러시·에이드·팻빙수·요거트...나주배의 참신한 변신

가공음료 4종 개발 이달 중 출시

배 슬러시, 배 팻빙수 등 나주배로 만든 다양한 음료가 새로 나온다.

나주시는 '100% 나주배'를 활용한 슬러시와 에이드, 팻빙수, 요거트 등 4종의 가공음료를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배 음료는 순수 나주배로 만든 배 퓨레와 배 청과 함께 쌀쌀·서리태·대추 등 모든 원료가 나주산 농산물이다.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은 물론 주로 배즙에 머물러있던 배 가공의 한계를 해소해 농가의 다양한 판로 확보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음료 4종은 나주 로컬푸드직매장 금남점(금남와락) 카페에서 첫 선을 보인다.



배 슬러시 배 에이드 배 팻빙수 배 요거트

이후 소비자 호응도 조사를 통한 보완·검증 절차를 거쳐 지역 커피숍과 가공식품 전문업체 등 새로운 판로 확보에 나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배 가공음료 개발을 통해 올해 코로나19와 저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배 농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는 전국 최대 배 산지로 지난해 기준 전국 배 생산량(20만732t)의 24%인 4만7952t을 생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영회생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해 주고, 매입 농지 등은 해당 농업경영체에게 장기 임대해 영농과 판매권을 보장,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76세 이상(영농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 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50%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매입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나 농지에 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6만원/㎡초과 농지 매입 제외)이며 매입 한도는 농업인 10억원 이내, 농업법인은 15억원 이내이다.

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로 임대기간은 총 7년이지만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농가 어려움 해소 위해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적극 지원

담양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가와 농식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픈마켓 온라인 판촉 광고,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상품 동영상 제작, 스토리텔링 등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5000만원을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단체,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한다. 담양군은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담양군 농식품 플랫폼 '담양몰'을 구축할 예정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화순 해병대전우회, 동구리호수 정화 봉사활동

수중 쓰레기 수거...생태환경 개선

화순군 해병대전우회(회장 문형선)가 지난 13일 동구리호수공원 저수지에서 수중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사진)

이날 봉사에는 서금음 해병대전우회 전남회장과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무보트와 잠수 장비를 이용해 잡목 등 수중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 저수지의 생태환경 개선에 나섰다.

화순군 해병대전우회는 수중 정화 활동 외에도 코로나19 방역 활동, 각종 행사장 질서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동구리호수공원은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최근 1급수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됐다"며 "민간단체와 협력해 저수지의 수중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Korea's Ecological Capital, Suncheon

순천국가정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추천 '2019-2020 웰니스 관광지 25선' 선정

순천만습지

미국CNN이 꼽은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50선' 선정 미술레거이드 '세계인이 꼭 가봐야 할 곳' 선정

선암사

2018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미술레거이드 '세계인이 꼭 가봐야 할 곳' 선정

송광사

미술레거이드 '세계인이 꼭 가봐야 할 곳' 선정 15 국사를 배출한 대한민국 3대사찰의 하나 (송보사찰)

낙안읍성

미국 CNN이 꼽은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50선' 선정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곳

